

2006년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

이수형*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 2006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은 단순한 요식 절차에 그칠 수도 있는 학부 졸업논문 쓰기에 좀더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졸업 예정자들이 졸업논문을 보다 성실히 준비하고 집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졸업논문 쓰기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의 내용은 중간보고서 제출과 최종 논문 제출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기 초에 졸업논문 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졸업논문의 특징, 자신이 준비 중인 졸업논문의 아이디어 수집 및 구조화 과정, 핵심주장(thesis) 수립 과정, 참고자료 검색 및 읽기 과정, 목차 구성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이 단계를 거친 후 졸업논문을 실제로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글쓰기교실 상담교와의 면담을 통해 논문 내용과 구성, 글쓰기 방법에 관한 조언을 얻고 이를 반영하여 졸업논문을 완성하게 된다(학생들에게는 중간보고서 제출 후 20만 원, 최종 논문 제출 후 40만 원 등, 총 6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이 부여한 이러한 단계를 거쳐 2006년 1, 2학기에 최종적으로 졸업논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명단과 졸업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와 졸업논문의 전체 내용은 글쓰기교실에서 퍼낸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소속 학과, 이름	졸업논문 제목
1 학 기	영어영문학과 최지원	음악 청음능력과 영어 청취력의 상관관계 연구
	종교학과 김영식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종교공동체의 변화 연구
	외교학과 배정민	동남아 인신매매 대응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학과 이정석	미국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회 관계 연구
	물리학부 박형렬	단일 분자 형광 이미징을 통한 암 관련 유전자 구조 동역학에 대한 연구
	응용생물화학부 박종선	사상성 진균의 GATA-type 전사인자에 대한 비교 유전체 분석
	교육학과 민윤경	빈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 '클레멘트 코스'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과 김아미	유리수 지수 기호와 그 개념
2 학 기	국어국문학과 박병훈	춘원 이광수의 『사랑』 연구
	생명과학부 서범석	예쁜꼬마선충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와 지방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굴과 기능의 규명
	기계항공공학부 노철우	가스엔진 구동 마이크로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한국형 공동주택의 전력 및 냉난방 부하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경제성 평가
	기계항공공학부 박찬익	소수성을 띤 화학적 나노막의 유무에 따른 저마찰 사각뿔 구조의 소수성 변화에 대한 연구
	기계항공공학부 배동환	실내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모형 차량 자동제어
	전기공학부 김상협	미숙아 망막병증 진단을 위한 초소형 접촉형 전방막 카메라의 개발
	전기공학부 차재평	초소형 비디오 도상 검안경 개발
	원자핵공학과 김기현	EGS Code를 이용한 Compton Suppression System Simulation
	산림과학부 박고은	솔잎혹파리 피해 반송잎의 해부학적 연구
	법학부 최배석	증권거래 및 증권투자신탁거래에 있어 수익보장약정의 효력과 보완적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학과 윤미희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지역평생교육센터의 역할 탐구
	영어교육과 강신애	영어 외래어 표기법 고찰 및 실제 발음 분석
수학교육과 박은주	증명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원인	

1, 2학기 사업 종료 후 실시된 간담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곤란한 점은 학생들의 졸업논문을 어떤 식으로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이미 예상한 것이기는 하나,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참여 학생 모두 기존 졸업논문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졸업논문 쓰기를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 및 소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지도교수나 선배들이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졸업논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논문 쓰기 형식이나 논문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 등을 배웠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공 내용과 글쓰기 일반으로 이원화된 논문 지도 방식에는 다소 이견이 있었고, 특히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법과대학 등에 소속된 학생들은 졸업논문 지도에 있어 전공 내용 및 학과별 특유의 글쓰기 관습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전공에 따라 논문 지도 방식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 남는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관련 전공자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전공에 걸쳐 있는 졸업논문의 내용 및 논문 쓰기 일반에 대한 지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현재 추세에 비춰볼 때, 관련 전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전공 내용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은 지도교수와의 면담 혹은 연구실 내부의 경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은 졸업논문 지도에 있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소속 학과와 좀더 긴밀한 유대를 갖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논문 쓰기를 일반적인 글쓰기 지도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